

# 기대했던 재정 확충 않고 정치권 '기웃'

### 취임 10개월 전운철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 신당 참여 파문

지난 1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장 등을 지낸 전운철(76)씨가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 지역 사회의 기대는 높았다.

거물급 인사의 취임으로 20년 역사의 비엔날레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광주 비엔날레가 새롭게 도약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전 이사장의 행보와 관련, 지역문화계에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 추진위에 이름을 올려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다 당초 큰 기대를 모았던 재정 확충에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재정상태가 열악해지는 비엔날레 입장에서는 전 이사장에게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한 재정 확충을 기대했지만 취임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비엔날레재단에 따르면 지난 1995년 69억 9000만원이던 재단기금은 2007년까지 285억20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이후 답보상태다. 특히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기금 이자가 전체 예산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극히 적다.

이자 수익은 2011년 11억5329만원, 2012년 11억2025만원, 2013년 9억9304만원, 2014년 10억5575만원 등 연간 10억원 안팎이다.

또 1회 때 약 106억원이었던 예산은 지난 2002년(제4회) 100억원대 미만으로 떨어졌고 2010년 89억원, 2012년 91억원, 2014 87억원 등 매년 축소

민간 이사장 기대 높았는데...

정부 지원까지 막히면 어쩌나

지역문화계 내년 비엔날레 걱정

됐다. 역대 최저 예산이었던 작년의 경우 자체 예산은 17% 밖에 안됐다. 나머지는 광주시나 정부의 보조금, 기업 후원 등에 기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1회 행사 때 약 32억원이었던 기업 후원은 2010년 2억원, 2012년 2억원, 2014년 4억원 등으로 감소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전 이사장이 인맥을 활용해 대기업 등의 협찬을 이끌어내길 바랐으나 아직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어 아쉽다는 반응이다.

전 이사장의 야권 신당 추진위 참여는 정부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적인 윤장현시장과의 관계도 소홀히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 이사장은 지난 행사에서 '세월오월' 풍파를 겪으며 '정치와 예술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선임된 민간 이사장이라 더욱 급지않은 시선이다.



보여 내년 비엔날레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고 염려했다.

전 이사장이 지난 9월 산학연총합센터 상임고문으로 취임한 데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비엔날레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정작 소홀히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산학연총합센터는 공·사기업체의 대표 및 고위 경영자, 벤처기업 사장 등 전문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기법 등을 교육하는 단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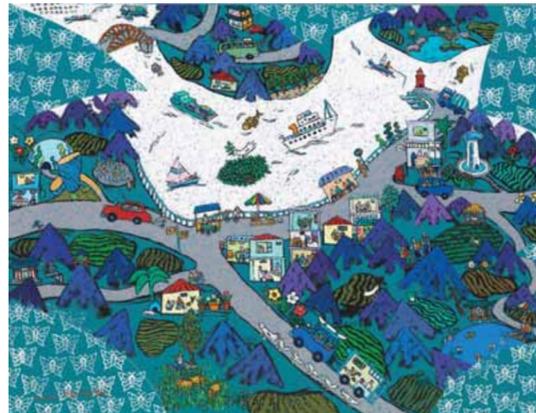
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전 이사장이 후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몇몇 군데에 접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전 이사장의 행보와 관계없이 재단측은 흔들리지 않고 다음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지역 문화계 관계자는 "이사장이 아무리 명예직이라도 정치적 연결고리를 때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비엔날레를 위해서는 이사장직을 사퇴하고 정치활동을 하는게 맞다"며 "특정 정파에 소속되면 아무래도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 그림이 들려주는 완도 이야기

주안갤러리 30일까지 김영화 개인전



'완도 여행 이야기'

김영화 작가가 30일까지 주안갤러리에서 '시공여행'을 주제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여행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일상의 소소한 모습을 담은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작 50호 크기(116.7×91cm)의 작품 '완도 여행이야기'는 마치 아트로드맵을 보는 듯 하다. 수많은 흰 나비가 그려진 청록색 배경을 바탕으로 산, 바다, 관광지 등 그들은 이어주는 도로 모습이 펼쳐진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김 작가가 완도 여행에서 보고 들었던 경험들을 묘사하고 있다.

캠핑가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장난을

치고 있고 바닷가열 펜션에서는 사람들이 게임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있다. 식당, 이발소, 치과, 당구장 등 완도 상점들의 모습도 그려져 있다. 작품을 보고있으면 작가가 들려주는 수많은 완도 이야기가 머리 속에 그려진다.

초등학생이 여름방학숙제로 그림일기를 그리듯 김씨는 작품은 어린이의 순수함과 일상 속의 소소함이 동시에 묻어난다.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한국미술협회 서양화분과 이사, 광주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목우회 광주·전남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문의 062-223-50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대 음악학과 오페라단 뮤지컬 '그리스' 무대

21일 광주아트홀

광주대학교 음악학과가 제13회 오페라단 정기 공연으로 뮤지컬 '그리스'를 무대에 올린다. 21일 오후 4시, 7시30분 광주아트홀.

뮤지컬 '그리스'는 새로운 자유를 표방하는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로큰롤 문화를 소재로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짐 제이콥스와 워렌 캐시가 극본, 작사, 작곡을 담당했으며 1972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그해 토니상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맞는 교정에 대니를 중심으로 한 티버드파의 남학생들과 리조를 리더로 하는 핑크레이디파의 여학생들이 방학동안의 이야기로 떠들썩하다. 남자들은 대니에게 해변에서 있었던 화끈한 그녀와의 사랑이야기를, 여자들은 샌디에게서 순수한 남학생과의 사랑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총감독 최덕식(광주대 교수), 연출 및 지휘 박미애(광주대 교수), 음악코치에 장희경, 안무에 김소형이 참여했다.

박혁진·이상운·김하늘·이슬기·조준아·류승



민·김민술·박정준·윤원식·조재훈·이다희씨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670-265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언어문화회 학술대회

21일 조선대 해오름관 대강당

한국언어문화회(회장 백수인 조선대 교수)가 21일 오전 9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제56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테러, 폭력, 정신병리 시대의 언어와 문화'로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 양상을 인문학에 반영한 주제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김하수 연세대 교수의 '공황 장애와 소통 장애'를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오전에는 전재형 한남대 교수가 '최승자 시에 반영된 부정적 연술과 실존인식 연구', 선주원 광주교대 교수가 '청소년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과 청소년의 정체성', 이평전 서원대 교수가 '1970년대 소설 속 공간과 신경증 연구', 장창영 군산대 교수가 '현대시에 나타난 폭력과 저항의 그늘'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현대문학, 고전문학, 국어학 및 국어교육학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서울대, 연세대 등 대학 교수가 12편의 개별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이 이뤄진다. 이날 발표될 논문은 기조강연을 포함하여 총 17편이다. 문의 010-3485-7314. /김용희기자 kimyh@

# 광주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공연

20~23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이야기를 그린 '라 트라비아타'가 오페라 팬들을 만난다.

광주오페라단(단장 김남경·사진)은 20~23일(행일 오후 7시·토일요일 오후 3시·7시 30분)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공연한다.

뒤마의 소설 '동백아가씨(춘희)'를 모티브로 F. M. 피아베가 대본을 쓰고 1853년 3월 6일 베네치아에서 초연된 '라 트라비아타'는 파리 사교계의 미모의 무희 비올레타와 프로방스 출신의 순정적인 청년 알프레도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특히 '라 트라비아타'는 많은 이들에게 친숙한 '축배의 노래'를 비롯해 알프레도의 사랑 고백을 받은 비올레타가 부르는 '아, 그이인가',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 부르는 '프로렌자 내 고향으로' 등 주옥같은 멜로디로 사랑받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에는 성악가들을 비롯해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대규모 합창단, 무용단 등 110명이 출연하며 국립오페라단에서 의상과



분장 등을 지원받았다. 주인공 비올레타 역으로는 김선희·임현진·박수연·진수정씨가, 알프레도 역으로는 강동명·송태왕·이상화·정기주씨가 출연한다. 그 밖에 김진모·염중호·나

의석·김재선·문혜란·유효임·서하은·손아름씨 등이 출연한다. 오케스트라 지휘는 변욱씨가, 연출은 양수연 씨가 맡았다.

1982년 지역에서 처음 창단된 광주오페라단은 1983년 창단 작품 '춘향전'을 무대에 올리며 광주에 오페라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40회의 정기 공연을 통해 '사랑의 묘약', '토스카', '라 보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아이다', '휘가로의 결혼', '세빌리아의 이발사', '돈 조반니' 등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정통 오페라는 물론이고 '베비장', '김치' 등 창작 오페라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문의 010-4617-300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에스골프**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전국 300곳 골프장 무기명 선불카드

그린피 "전액무료"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진리.광주지사상품 (수도권 및 부산, 대전상품 상이하니 별도문의 바랍니다.)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해당 골프장과는 무관하며 에스골프는 부킹몰(주)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 ※ VAT포함 금액

보통형 상품안내 (1000회 한정)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S-트윈	보증금 : 3,000만원 입회금 : 660만원	무기명 2인	5년	총 120회 (년 24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그린피(세금포함) + 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S-VIP	보증금 : 6,000만원 입회금 : 1,320만원	무기명 4인		총 245회 (년 48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보증금은 5년 만기시 무이자로 반환되며 입회금은 소멸되는 금액입니다.

**에스투어**

해외 골프투어

동남아 원하시는 곳 어디나 가능!!

"총 50박 무료!!"

동남아시아상품 (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구분	분양가	회원구성	이용기간	회원혜택(무료)
S-투어(싱글)	297만원	기명1명	5년(년10박)	1박 18홀 기준 전액무료 불포함사항 항공료(TAX, 유류할증료), 석식, 카트비(캐디비, 캐디팁)외, 별도 추가비용
S-투어(트윈)	495만원	기명1명+ 무기명1명		
S-투어(VIP)	880만원	기명1명+ 무기명3명		

※ 상기 금액은 VAT포함 금액

문의전화 **062-415-8811**

지사 서울(수도권지역) 1566-9799 경남(경남,부산지역) 051) 916-7070  
대전(충남,대전지역) 042) 320-7800 부산(경남,부산지역) 051) 916-9700  
대구(경북,대구지역) 053) 248-6666 울산(경남,부산지역) 052) 260-4575